



# 南冥院報

제 28 호  
2002년 12월

THE NEWSLETTER FROM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發行人: 金忠烈 / 發行處: 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 / 住所: 慶南 普州市 鳳谷洞 14-21 / 電話: (055)748-9147~8



▲ 본원과 진주교육대학교는 남명학 연구진작 및 남명사상교육등을 골자로 하는 협정서를 체결했다(2002.8.30)

## ◆ 目次 ◆

題字: 金忠烈

- 3-4 / 시론 IT 산업과 남명사상 / 권정호
- 4-8 / 선비문화 축제와 남명학연구원 / 권순찬
- 9-16 / 대곡 성운 찬 남명조식선생비문 한역시말기 / 김충렬
- 17-19 / 남명선생평전 - 제 1 장 생애, 4. 산천재에 이는 대바람소리(5) / 이상원
- 20-22 / 특집 제 2 회 선비문화축제
- 22-23 / 서평 《학기유편 - 사람의 길 배움의 길》 / 권인호
- 23-24 / 책소식
- 25-26 / 학술대회 소식
- 26-28 / 연구원 소식



항상 남명학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社 團  
 法 人  
**南冥學研究院**  
 理 事 長 權 淳 纘  
 院 長 金 忠 烈  
 謹 拜



[ 時 論 ]

## ■ ■ IT 산업과 남명사상 ■ ■

권 정 호 |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오늘날 문화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다. 과거 같으면 수 백 년에 걸쳐 이루어질 변화가 단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현정부 들어와서 IT 산업을 국책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정책적 사업으로 보인다.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는 것은 현재나 미래사회에서 강한 힘이 될 수 있다. 몇 달 전 어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률은 학생이 있는 가구는 100% 가까이 구비하고 있을 정도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은 3 가구 당 2 가구 이상 이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1 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화 투자의 경우 90년 1조원에서 93년 11조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 99년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7조원, 2000년에는 27% 증가한 47조원으로 추정됐다. 그 결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작은 시골 가정에서도 세계의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개방은 학생들의 학습, 과제에서부터 쇼핑, 국내 소식, 외국신문까지도 소상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의 개방으로 이어졌다. 실로 가까운 과거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가 증명하듯이 인터넷 역시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확산, 스팸메일 피해의 증가, 음란 사이트의 해독 등이 독버섯처럼 피져 감수성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을 뺄어낸 길로 유혹하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중국은 아예 유해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문제의 해법은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 방법으로 유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타율적이라는 점에서 수준 높은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교육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사를 보면 서구 교육사상을 배워서 전달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되돌아보면 당시의 역사적 필연성이 있었겠으나 서구 이론으로 접근한 결과는 자못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우리말보다는 남의 말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것은 작은 일이다. 사회 구성원의 사고 자체가 서구화되어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던 공동체 중심

의 사회가 점수에 의한 경쟁주의, 금전 만능 주의의 개인주의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자극적인 서구 문화를 추종하게 되고 정작 수천 년을 간직해온 우리 문화와 겨레의 정체성은 상실되어 정신문화가 황폐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해법은 우선 인문학을 살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할 줄 알고,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것이 학문의 바른 순서이다. 나를 모르면 결국 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체성이 없으면 겨레나 국가를 생각하는 인체는 양성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교육적 역할은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정체성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정부는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진정한 IT 산업의 발전은 겨레 정체성을 담보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다. 이 콘텐츠를 전통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엮어야 한다. 남명사상도 그 중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 당시 성리학 일변도의 세상에서 남명 선생처럼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여 제자들에게 교육한 분은 조선시대를 통 털어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은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고 교육의 도구와 자료로 삼고 있는 시대에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점이다. 그런데 현재 선보이는 콘텐츠는 우리 것을 뺀 나머지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대단한 오류다. 자라는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 마야 문명이나 찬란한 잉카의 정신문화가 서구의 물질 문명의 위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만화, 영상물 등은 모두 서양 것이거나 파괴, 살생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자

란 세대가 보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공동체적인 삶의 복원과 평화의 달성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일에 대처할 방법은 우리의 전통 고전을 현대적 방식으로 바꾸어 전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고전이란 단군신화, 동명왕신화, 유학사상, 남명사상, 전통의학, 전통놀이 등 전통사상이 담겨있는 자료의 총칭어로서, 이를 소재로 한 게임, 영화, 만화 등을 개발 보급하여 비록 매체가 과거와 다르더라도 계승할 정신은 분명히 전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우리 겨레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이다. 이런 일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며, 이 21세기 초를 넘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시

기 이후에는 서구화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급속히 변화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자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 놓고 조용히 일러주었던 말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다’는 말은 때때로 배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때에 맞게, 때에 맞추어 배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논어』의 한 구절처럼 인문학을 배우고 익힐 때다. 방법은 IT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온고지신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敬義**

## 선비문화축제와 남명학연구원

권순찬 | 본원 이사장

### (一) 南冥誕辰 500周年 기념-선비문화축제

#### (1) 취지와 개요

南冥學研究院은 1986년 발족하였다. 그 후 1994년 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으로 개편되어 8년이란 보람을 겪어왔다.

그동안 매년 國際學術會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南冥學研究論叢』을 10輯까지 發刊했고 「南冥院報」를 25號까지 發刊했으며, 해마다 南冥祭를 거행하여 嶺右地方人士들이 모여 그 學德을 흠모하였다.

그러나 先生의 死後, 南冥學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實質 內容과는 달리 크게 위축되고, 평화되어 우리들 後學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여겨왔다.

무엇인가 큰 이벤트를 계기로 삼아서 南冥學을 全國적으로 알리고 嶺右의 自尊心을 드높여야 하겠다는 것이 衆論이었다.

그것이 2001년 8월 18일을 전후하여 개최한 “南冥誕辰 500周年記念-선비문화축제”였다.

南冥선생은 1501년(燕山17년, 退溪와 같음) 탄생하여 평생 處士로써 1572년(宣祖5년) 생을 마감했다. 2001년은 탄신 500주년에 해당하는 해다. 2000년 10월에 後孫인 昌寧 曹氏 門下과 (社)南冥學研究院이 주축이 되어 自生團體인 南冥誕辰 500周年記念事業會를 구성하였다. 그 때 발표한 ‘趣旨文’은 다음과 같다.

## 취 지 문

2001 년은 敬義哲學을 표방하여 實踐儒學을 강조한 南冥 曹植(1501-1572) 先生의 誕辰 500 周年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그 학덕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몇 가지 뜻 깊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南冥 선생은 혼탁한 時流에 영합하지 않는 엄격한 出處觀을 견지하여 평생을 處士로 지내면서도 爲民政治를 역설하여 수차 上疏를 올려 國政을 바로잡고 士林의 言路를 열고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선생은 제자의 개성에 따른 교육으로 수많은 英才를 길러내어 우리 教育史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 결과로 丁辰倭亂이 일어나자 선생의 遺志를 받은 50 여 명의 제자들이 義兵將으로 쫓겨하여 國難克服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南冥學이 黨爭에 의한 참변으로 소외되고, 日本學者들에 의해 배척됨으로써 거의 매몰되다시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 여 년 전부터 南冥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일구어냄으로써 국내외에서 점차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홍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생 탄신 500 주년을 맞이하여 德川學院, 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南冥學釜山研究院 등 관련 연구기관과 慶尙南道, 山淸郡, 陝川郡, 金海市, 晉州市 및 南冥學派 연원가 등이 주축이 되어 「南冥先生 誕辰 500 周年 記念事業會」를 구성하였습니다.

記念事業會는 ① 國際學術會議 개최 ② 記念造形物 조성 ③ 南冥學 관련 冊子 발간 ④ 敍事劇 공연 ⑤ 南冥祭를 중심으로 한 記念行事 거행 ⑥ 영상 홍보를 제작 ⑦ 학생들의 南冥선생 史蹟地 순례 ⑧ 漢詩自由場, 全國高校生文藝作品 公募 및 書藝展 개최 등의 행사와 ⑨ 遺物展示館 및 教育館 건립 ⑩ 南冥선생 石像 建立 등으로 「南冥史蹟公園」 조성 등을 江右學派의 자존심을 걸고 추진하

고자 합니다.

이는 南冥선생 이래 지나온 500 년의 역사를 반성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후학들에게 민족의 精氣를 일깨우고 새 천년의 시대정신에 접목하려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에 南冥 史蹟公園(國家文化財 史蹟 305 號) 조성은 智異山 관광벨트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江湖諸賢께서는 이 기념사업이 뜻 깊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양망하는 바입니다.

南冥 誕辰 500 周年 記念事業會

사업의 윤곽과 모습을 그렸으나, 문제는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었다. 이때 慶尙南道 金燮珪 知事가 “慶南精神의 뿌리가 바로 南冥精神이다”라고 천명하여 慶尙南道의 전 力量을 투입하여 이 행사를 돕게 되었다. 그 동안의 사정을 南冥祭 記念式 때의 “南冥선비文化祝祭 경과보고”로 대신해서 설명코자 한다.

## 南冥선비文化祝祭 경과보고

우람한 지리산 천왕봉 아래 이 곳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덕산에 南冥 曹植 선생의 유덕을 기려 경향 각지에서 찾아주신 7,000 여명의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 江右지방에서 南冥 탄신 500 주년을 기념하여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式典을 경남도민의 矜持와 自尊心을 드높이고 일류 경남의 건설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南冥 탄신 500 주년 기념행사를 구상한 것은 지난 2000 년도 초부터입니다. 민간단체 위주의 기념사업 준비회를 구성하여 행사의 줄거리는 마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없어 적지 않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金燮珪 慶南지사께서, 敬·義철학



## [특별기고 1]

에 바탕한 實踐儒學, 또한 言路를 통한 民本思想 구현, 그리고 義兵將을 낳은 節義정신 등으로 표상되는 南冥정신을 바로 "慶南정신의 뿌리"라고 천명하여, 경상남도 예산으로 이번 선비문화 축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의 "선비문화 축제"의 기념 행사비 예산은 총 6억 4,888 만원입니다. 그 중 道費가 3억 1,800 만원, 관계 시, 군 자체지원이 1억 7,500 만원, 합계 4억 9,300 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7%입니다. 기타 기념사업회와 卍氏 문중의 협찬금이 7,000 만원, 마사회기금 지원이 7,000 만원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금년 2001년 3월 5일 李賢宰 전 국무총리이자 현 德川, 卍院 원장님을 명예대회장, 金麟圭 도지사님을 대회장으로 추대하고, 도내 유림계, 학계, 언론계, 행정계를 대표하는 중진 23명이 權煥錫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선비문화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사)남명학연구원과 경상남도, 산청군 간부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위원장 - 권순찬 남명학연구원 이사장)를 발족하였습니다.

근 5개월 동안 경상남도와 산청군, 진주시, 합천군,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합심하여 검소하고도 뜻깊은 행사 계획을 추진 준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의 "선비문화축제"는

첫째 南冥學의 학술적 심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1, 2차 국제학술회의 개최)

둘째 젊은이들에게 南冥정신을 심어주는 대중화 행사(서사극 공연, 南冥유적지 탐방, 전국고교 문예작품 공모, 의병출정식 등)

셋째 南冥祭禮, 관례·계례의 재현, 전국 漢詩白川場 등 傳統 儒林行事

넷째 南冥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南冥史蹟공원" 조성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기념 시설면에 있어서는 이곳 德山의 山天齋, 德川, 卍院 일대의 유적지에 유물전시관 겸 교육관 건립을 위시한 碑林 등 "남명사적공원" 조성 과 합천군의 龍巖, 卍院 복원 등에 2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지금부터 착공하여 2003년에 완성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국 교수와 卍氏 문중의 성의로 南冥石像을 건립하여 오늘 제막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성되면 이 일대는 江右정신이자 慶南정신의 발원지인 동시에 智異山 관광벨트의 핵심적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金鎔鈞 합천·산청 국회의원께서 적지 않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완성될 예정인 경상대학교 내 900여 평의 南冥學館 건립에 경남도 예산 5억원, 그리고 金章河, 卍玉煥 두 분의 많은 성금이 투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의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하여 南冥정신이 이곳 서부경남에서 경상남도 전역에,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재삼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까지 金麟圭 경남지사님의 정성어린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權淳漢 산청군수님, 姜錫延 합천군수님, 卍辰斗 진주시장님의 성의 있는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言論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따뜻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炎天 아래 불철주야 몸을 던져 준비에 몰두해 주신 관계자와 관계 당국 그리고 卍願奉仕 해주신 지역 유지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7,000여명의 내빈 모든 분들에게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경과보고에 가름합니다.

우선 國際學術會議는 1, 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1차 회의는 (社)南冥學研究院이 주관하였으며 主題는 "남명학과 21세기 유교부흥운동 전개"(2001. 8. 16, 삼성산청연수소, 발표자 14인) 2차 회의는 南冥學研究所가 주관하였으며 주제는 "한국유학사상과 남명학의 위상"(2001. 10. 25~26, 경상대 남명학관)이었다. 주요 기념행사는 敍事劇(2001. 8. 17, 20시, 극명 - 선비정신의 표상 남명, 이윤택 연출), 義兵出征式(8. 17. 21:40), 선비문화축제 기념식(8. 18. 10:20, 7,000

명의 화객운집)등이 屢窵이었다.

특히 敍事劇은 그 후 경상남도 각 市郡에도 순회 공연하여 좋은 반향을 얻었으며 2001년 10월 서울예술제에서 대한민국 연극대상을 얻어 南冥인식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 (2) 南冥관련 시설의 확충 정비

우리는 일시적인 행사에도 신경 쓰는 동시에 德川書院 및 山天齋 일대를 단장 정비하여 南冥메카로 만들고자 하였다.

백방으로 청원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4년에 끝내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그 정비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본다.

### ① 遺物展示館 건립

山天齋 경내에 240평 목조단층 기와집을 건립, 南冥선생 遺物展示館, 教育館의 기능을 갖는다. 2003년 완공 예정.(예산 약 14억)

### ② 南冥石像 건립

山天齋 경내에 中國産 上質 白玉의 높이 3m, 기대 3m의 조각 석상으로, 이는 중국 淸華大 彭林교수가 중국에서 조각, 寄贈한 것이다.

### ③ 墓所 정비, 德川書院 보수

山淸郡 矢川面 山天齋 뒷산의 墓所 일대는, 2001년 8월 초에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矢川面 院里 德川書院의 보수공사는 2002년 8월에 완료하여 면모가 일신되었다.(사업비 2.5억원) 덕천서원은 빗물이 새고, 묘소의 성묘길이 비좁아 불편하였던 것이 깨끗이 보수, 확장되었다.

### ④ 史蹟公園 외곽도로 조성

산천재 남쪽에 외곽도로를 조성하여(약 4,500평) 조경에 힘쓴다. 산청군이 주관하여 2004년에 완공 예정이다.

### ⑤ 南冥學館 완공

경상대학내 남명학관은 1996년 착공하여 2001년 경상남도의 보조(5억), 釜山河, 卍玉煥 두 분의 협찬으로(18.5억)으로 2001년 10월에 준공되었는데 총 공사비 42.3억원이 투입되었다. 부지 310평, 건평 838평(지하 1층, 지상 3층)으

로 남명학연구소, 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남명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⑥ 古宅 및 용암서원 복원

陝川郡 삼가면 토리 고택을 복원(4억)하고 뇌룡정에 인접하여 용암서원을 다시 건립(6억)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2001년 南冥탄신 500주년 선비문화축제는 官民一體, 舉道的 행사로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어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남명학의 위상도 크게 선양되었다고 자평한다. 우선 死後 근 420년간 퇴계, 남명의 양 후손 門人間에 沒交渉했던 관계가 탄신 500주년을 계기로 상호 爬錄을 전달했음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또 道와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선비문화축제를 표본삼아 2002년 “지역민속축제”로 지정하여 적지 않은 보조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一過性 행사의 우려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2년 8월의 「남명 선비문화축제」는 “새천년을 남명선생의 선비정신으로”를 주제로 하여 행사를 계획 추진하였으나 2001년 제1회 선비문화축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뒤 8월 중순 경남도는 막심한 풍수해를 입어 자숙하는 마음으로 축제의 내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 (二) 南冥學研究院 - 현황과 과제

이상에서 회고한 바와 같이 타 학파에 비해 많은 억압을 받아 그 존재조차 내세우지 못하였던 南冥學이 우리 사회에 얼굴을 들어낸 지 불과 30년도 채우지 못했지만 타 학파와 당당히 어깨를 견줄만한 위상에 올랐다. 이로써 嶺南學派 儒林의 오랜 숙원이 달성된 것이며 큰 자부심,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南冥學은 同好 학회 간(남명학연구원,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서울대 남명학회, 진주교대)의 긴밀한 협조와 독자발전력에 힘입어 그 연구가 전국의 타 학회에서도 인정받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각 학회를 이끄는 대표자(남명학연구원, 남명학연구소, 서울대 남명학회, 진주교대)의 높은 식견과 모든 회원의 끊임없는 노력의 덕분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것은



## [특별기고 1]

첫째,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학술회의(주최 : 남명학회,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를 2회나 개최한 사실이다. 서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내에서 南冥學 학술발표회를 당당히 주최한 저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南冥學研究院과 晉州教育大學校(진주문화교육 연구원)간에 다음과 같은 협정서를 교환한 일이다.(2002. 8. 30)

남명학연구원은 學術的 연구와 더불어 教育的 확산이란 양면활동을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할 처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양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진주 교대에서는 2000년부터 교육적 視野에서 남명학 연구를 전개하여 『조식의 생애와 사상』 1,000부 발간(2002. 8), 「조식의 교육사상」 1,000부 발간 예정(2002. 12 예정), 「남명사상과 문학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9월 28일 김충렬, 정우락 두 교수를 초빙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진주교대에서는 재학생에게 남명사상을 강의하고, 교사 직무 연수시 남명학을 강의하는 열의를 발휘하였다. 이 같은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기능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전의 非常式 교육이나 注入式이나 服從교육 등을 지양하여 개성에 따른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자연과의 접촉을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史蹟公園 조성사업이 2003년 말에는 완료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남명학 발전의 원천적 기반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남명학연구원의 850명의 회원과 160명의 이사진이 다시 창조적 동력을 창출하여 계속 전진을 거듭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協 定 書

國立 晉州教育大學校와 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은 南冥學研究 및 南冥思想教育을 통하여 남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共同的 目標을 인식하고,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項目을 協約한다.

1. 兩機關은 南冥學 研究 및 南冥學 教育 事業에 필요한 教授, 研究人力, 學生 自願奉仕 人力 등의 人的資源에 대하여 要請이 있을 때 相互支援한다.

2. 兩機關은 必要時 當該 機關의 事業에 支障이 없는 한 施設 및 기타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相互支援한다.

3. 兩機關은 當該 機關에서 發行, 製作되는 南冥學 관련 情報, 文獻 기타 資料를 交換하고, 要請이 있을 때 貸貸할 수 있도록 相互支援한다.

위의 項目을 성실하게 履行 할 것을 協定한다.

2002년 8월 30일

國立 晉州教育大學校 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  
總長 權正浩 院長 金忠烈



김 충 렬 | 본원 원장

一. 비문을 번역하게 된 연유

제 26 회 남명선비문화축제 본 행사 전날인 2002년 8월 17일 대회장인 덕천서원의 원장 이현재 전총리와 사단법인 남명학연구회 부이사장 조옥환 부산교통사장이 남명선생 묘소를 배알했다. 여기서 두 분은 묘비문이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어 많은 참배객들이 선생의 생애와 학덕의 대략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 글로 된 비석을 따로 세워야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두 분은 각각 필자에게 이 뜻을 전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번역을 맡아 주기를 부탁해왔다.

비문이란 그 사람의 행적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널리 알려지게 하기 위해 金石에다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학자 몇 사람이나 겨우 읽을 수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다면 이는 묘비로서의 소용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세우나마나 한 일이 된다. 그래서 옛 비석은 옛것대로 세워 두고 따로 번역된 비석을 곁에 세우는 가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남명선생 묘소는 山天齋에서 가까운 如在室 뒷산 그리 높지 않

은 언덕에 있는데, 묘소 입구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바쁜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이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묘소를 포함해서 산천재, 여재실 일대를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여 선생의 유적을 사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교육과 관광을 통해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의 묘소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럴적마다 비석을 들여다 볼 것이니, 참배객들이 헛되어 돌아가지 않도록 번역비를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실한 일이고 또 시간적으로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二. 각 판본 간의 出入增削

문제와 역자의 입장

그런데 막상 비문을 번역하려고 대본을 자세히 읽어보니 비문 역시 다른 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판본마다 조금씩의 文字出入이 있었는데, 특히 19세기 말(1890년대)에 신간된 이른바 '初期重刊本' 과 1930년대에 이루어진 중간본에 실려 있는 비문은 그 添削이 심하여 어느 판본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이 생겼다. 그러나 이 비문은 분

명히 大谷 成運 선생이 썼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에 때문에 그의 최초 원본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판본에 있는 것을 그 원본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이에 『大谷先生集』에 있는 「南冥先生碑文」을 찾아보았다.

『대곡선생집』은 『南冥先生文集』이 처음 간행되던 17세기 초,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되었는데(1603년), 『남명선생문집』처럼 여러번 改版되는 수난을 겪지 않고 원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선 『대곡선생집』에 있는 「남명선생묘갈문」을 기저로 삼고, 그것과 『남명선생문집』에 실린 여러 판본의 비문과 對校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곡선생집』에 있는 비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원본이라면 바로 그것을 번역하면 되지, 다시 『남명선생문집』에 실린 文字出入이 많은 비문과 대교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그러나 필자가 대교를 거치면서 마음이 달라진 것은 『남명선생문집』 여러 판본의 비문에 출입이 생긴 것은 그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곡선생

이 지은 「南冥先生墓碣文」은 寒岡 鄭述 선생이 평한 대로 “대현의 기상을 잘 구현한 명문” 입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상에 한 자도 건드려서는 안 될 만큼 완벽한 문장은 없다. 그리고 문장 중에는 사소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비문의 글은 길게 쓸 수 없으므로 압축하고 줄여 쓰다 보면 너무 소략하게 되어 좀더 부연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게 마련이다. 『남명선생문집』에 修改 增削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었던 것 같다.

흔히 번역의 3대 요소로 信, 雅, 達을 말하는데, 이는 19세기 초 중국 학자들이 서구 서적을 번역하면서 유념했던 것으로 오늘날 까지도 교훈이 되고 있다. 信이란 물론 번역대상물의 사실 내용을 조금도 다름이 없이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信을 번역 대상의 信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이 소설과는 다른 ‘사실의 기술’ 이거나 논리의 정확성, 진리의 보편타당성을 요구하는 것일 경우 번역물 자체의 내용이 신실한 것이냐 하는 검증까지도 필요로 한다. 그리고 雅란, 문장의 품질, 격조의 문제인데, 대개 ‘번역 대상의 글’ 과 ‘번역으로 쓰이는 글’ 의 문장 구문의 어법이나 투가 같을 수 없으므로 고지식하게 곧이곧대로 번역하다 보면 문장 형식(문법)에는 맞을지 모르나 그 문장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전달이 공허해지거나 변형(走樣)될 수 있다. 그러므로 雅에는 역자의 일관된 자기 나름의 틀과 표현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達이란 번역의 목적 달성을 말하는데, 결국 번역이란 원저자와 독자 사이

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번역 대상의 내용을 십분 독자가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도 받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일 게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선 여러 판본을 대교 검토하고, 修改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믿거나 增削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참작 재량해서 번역에 넣기로 했다. 그렇다고 필자 맘대로 새롭게 손을 대는 모래한 짓은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기존 판본상의 문장에 한해서 융통성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번역이라고 해서 모든 글귀를 완전히 풀어 쓸 경우, 앞에서 말한 대로 오히려 의미개념마저 분해 희석될 염려가 있고, 특히 비문이라는 한정된 분량을 너무 부풀리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요 개념 용어는 따로 주를 붙여 설명을 가하는 방안을 쓸까 한다. 다음은 『대곡선생집』에 있는 비문을 기본으로 해서 『남명선생문집』의 여러 판본의 글과 대교 검토해 본 것이다.

### 三. 각 판본의 대교 검토

① 『대곡선생집』 비문(이하 원문이라고 함) 첫머리에는 “昔, 故爲著姓” 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本貫을 쓰지 않고 있는데, 대곡선생이 쓴 비문에는 대부분 貫鄉이 빠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관례에 의하면 있어야 한다. 그래서였는지 丁戌本에는 墓碑文 아래 “稱世有人, 石本作系出出寧” 이라는 小註가 달려 있다. 즉 石本(탁본)에는 “稱世有人” 대신에 “系出出寧” 이라고 관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의 石本이란 한강선생이 처음에 탁본하여 여러 사람에게

돌렸다가, 혹여 비석의 석질이 상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판각을 해서 덕천서원에 보내었다고 하는 그 석본을 말하는 것일 게다. 이는 아마도 임진왜란 때 덕천서원이 소실될 때 함께 소실되자나 않았나 한다. 그 뒤 전해졌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小註는 丁戌本 이전의 초기판각본(丁酉本)에는 없고, 임술본 이후에는 辛亥本, 釐正本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 본문의 “稱世有人” 녁 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 어디까지나 본저자의 글을 존중하고 있다. 필자는 번역에서는 이 주를 본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것은 비문을 쓰는 통례상 본관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 원문과 丁酉本에는 “自爲兒齒” 라고 되어 있는데 丁戌本부터는 齒자가 삭제되었다. 齒자는 나이라는 뜻이니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지만, 본문에 齒자가 있었다면 본문존중의 원칙에 따라 되살려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구태여 다르게 본다면 兒자만 쓰면 ‘아이 때부터’ 로 번역해야 하고 齒자를 더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로 좀 다른 형용의 맛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③ 원문을 비롯해서 釐正本까지 모두 “左柳傳文” 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중간본 이후로는 傳자가 삭제되었다. 傳자가 끼일 경우 문장이 오히려 어색해지므로 문맥으로 보아도 삭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역자는 삭제본을 따랐다.

④ 원문에는 “因國策上” 로 되어 있는데 丁酉本에서는 國자 아래 學자가 더해졌다가 丁戌本 이후로는 모두 學자를 삭제하여

다시 원본에 따르고 있다. 이 대목은 동사가 하나 가해져야 문장이 짜이겠는데, 다만 學자는 적당한 것 같지 않다. 번역하기에 명확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글자를 써넣을 수도 없고 해서 앞뒤 문장과 연결해 볼 때 대개 이런 뜻일 것이다 하는 추측으로 의역을 했다.

⑤ 원문과 乙酉本, 丁戌本, 辛亥本, 旣正本에는 모두 “擢置第二第 三者, 凡 三焉” 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중간본 이후에는 ‘二, 三’ 이 ‘一, 二’ 로 고쳐졌다. 어느 것이 맞을지 상고해 보니 乙酉本에 나오는 “昔 王菴所贈大學冊衣下” 문장 중에 “三居一等” 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남명 자신이 쓴 글이다. 그 후 旣正本에 나오는 [年譜] ‘12年條’에 “秋赴鄉舉第二” 라는 기록이 있고, 소주에 “三居一等, 此其最後也” 라고 있다. 이것은 여러 번 치른 과시에서 앞에서는 세 번이나 一等을 하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二等을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第一第二者, 凡 三焉” 으로 고친 것이 보다 정확한 것 같다.

⑥ 원문에는 “進退之幾” 로 되어 있는데 乙酉, 丁戌本 이후에는 幾가 機로 바뀌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원본의 幾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進退의 기미를 밝게 감지했다고 할 때 機보다는 幾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아서이다.

⑦ 원문에는 “菴懷, 退居山野, 名其所築亭曰山海” 라고 되어 있는데, 乙酉本에는 菴懷와 退居 사이에 而자를 끼어 넣었고, 임술본에는 菴懷 밑에 問註로 “退居山野, 自號南冥” 이라고 추가

했으며(辛亥本亦同), 旣正本부터는 問註를 본문에 넣어 山野 밑에 “自號南冥” 네 자를 더하고 있다. 원본 비문에는 한글 테도 南冥이라는 호가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에 끼어 넣는 것이 적적할 것 같아 뒤에 가입한 것을 따르기로 했다.

⑧ 원문에 “引對前殿” 이라 있는데,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모든 판본은 그대로 쓰고 있다. 정내암, 김동장의 행장에 모두 思政殿이라고 쓰고 있어 역자는 이에 따른다.

⑨ 원문과 乙酉本 이후 판본이 모두 “上問治亂之道”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초기중간본 이후부터는 크게 손질을 가하여 다음의 글을 보태었다. “上問爲治之道, 對曰: 古今治亂, 載在方策, 不須臣言, 竊以爲君臣之際, 情義相孚, 洞然無間, 可與致治. 古之帝王, 遇臣僚若朋友, 與之講明治道, 卽以有疇都俞之盛也. 方今生民困悴, 離散如水之潰流, 當汲汲救之, 如失火之家云云.” 또 “上問爲學之方”(원본에는 問자 앞에 又자가 없는데, 丁戌本부터 又자를 더했다) 대목의 “學貴於心得”(원본에는 其자가 있는데 중간본부터는 없어졌다) 밑에 “得於心可以窮天下之理, 可以應事物之變, 而總攬萬機, 自無事矣. 其要在敬而已” 라는 꽤 긴 문장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원문의 이 대목이 너무 소략하여 남명선생 상소문에서 따다가 보충한 것 같다. 본문에 너무 많이 손을 댄 것 같아 대곡선생께 미안하지만 후학들의 生文이 아니라 남명선생의 글을 더한 것이므로 대곡선생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된 부분까지 번역하기로 하였다.

⑩ 三顧草廬를 묻는 대목에서 원문에는 “必得英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본 이후에는 ‘英雄’ 을 ‘人’ 으로 고쳐 썼다. 이는 원본의 뜻이 옳다고 보고, 또 행장에도 ‘英雄’ 으로 되어 있어 원문을 따른다. 그리고 “因累章獻言” 의 구절에서 乙酉本 이후의 旣正本 모두가 伊字 아래에 言자를 넣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본을 따르기로 했다. 이 밖에 “口不作吾伊之聲” 을 중간본 이후로는 伊字로 했는데, 같은 뜻이어서 관계치 않았다.

⑪ 원문에는 “支體不可解也”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본 이후로는 解를 離로 바꾸었다. 같은 뜻이어서 개의치 않는다. 그 뒤에 “死喪之威” 의 威를 중간본 이후로는 威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따르기로 한다. 다음 “狂奔盡氣, 如救水火. 輕出貨力, 猶棄糶” 구절에 있어서 乙酉本에서는 輕을 轉으로 바꾸고, 중간본 이후에는 “徇徇盡力, 如救水火” 라고 고쳐 줄이고 있다. 크게 보아 같은 내용이지만 원문을 고치거나 줄일 이유가 없으므로 원문을 따른다.

⑫ 원문에는 “有所質問, 則必爲之剖析”(乙酉本同)이라고 되어 있는데 丁戌本 이후로는 則자가 삭제되었다. 없어도 되지만 則을 쓴 것은 아마도 ‘머뭇거리림 없이, 이내’ 라는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어 원문을 따른다. 원문에는 “捨切近趨高遠” 아래 바로 “爲學初不出” 로 되어 있는데, 중간본 이후로는 “不是小病” 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작은 병이 아니라는 뜻 같은데, 문장이 질박하지 못하다.

뜻만 받아들인다.

⑬ 원문에는 “終無實得於心” 아래에 “宜深戒之” 라고 되어 있고 이왕의 각 판본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중간본 이후에는 삭제되고 없다. 원문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의 “畫古聖賢遺像” 에서도 중간본 이후에는 畫자를 摹자로 바꾸어 쓰고 있는데, 摹는 이미 있는 어떤 그림을 베낀다는 뜻이 있으므로 畫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러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다음에 이어서 “張在座隅，自存而心思” 라고 되어 있고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 중간본 이후에는 여덟 자를 삭제하고 “每朝瞻禮” 녀 자를 새로 써 넣었다. 앞의 여덟 자를 원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행장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추가한 글도 그대로 번역해 넣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⑭ 원문과 모든 판본에는 “於夜尤專” 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본에는 “夜中尤專” 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던 “以故常自佩金鈴，號曰惺惺子，時振以喚醒” 을 모두 삭제하고 “每讀書，得緊要語言，必三復已，乃取筆書之” 에서 語言의 言을 빼고 已와 乃를 뒤바꾸어 乃已로 하였다. 이상은 모두 원본대로 환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圃에 대해서 원본은 “天道，天命，理氣，性情” 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본은 “天道心性情” 으로 줄여 놓았다. 이것도 원본대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

⑮ 원본의 “病丑” 다음의 復를 중간본에는 猶로, 敬義 밑의 字를 說로 고치고 “斥婦人” 밑의 手를 없앴다. (復보다는 猶가 좋은 듯하나 復를 ‘거듭’ 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의 뜻보다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원문의 “怡然” 의 怡를 중간본에서는 恬으로 바꾸었는데, 怡보다 좋은 듯하나 恬는 더 넓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본중시원칙에 따라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대로 따른다.

⑯ 원문에는 “堂案斜級者，其類非一” 이라 있는데, 己西本, T:戊本부터는 “斜” 를 “科” 로 고치고 있다. “科” 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수정한 것을 따른다.

이상의 판본간의 대교와 검토를 거친 뒤 번역으로 들어갈까 한다.

#### 四. 번역된 비문

曹氏는 옛부터 저명한 姓氏로, 세상에 알려진 인물들이 많았다. 고려 태조의 딸 德宮公主가 휘謙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 휘瑞를 나오니 선생의 始祖이다. 그 후 九代에 걸쳐서 平常事(正二品)를 지내는 창성함을 이루었다. (주1) 고조 휘殷은 中郎將을 지내시고, 증조 위安贊은 성균생원이시었고, 조 휘永은 벼슬을 지내지 않으셨다. 아버지 휘彦亨은 문과에 장원하셨고, 문장으로 吏曹正郎에 선임되는 이름난 선비이셨다. 강직한 성품을 지녀 뜻 맞는 이가 드물었으므로 벼슬이 承文院判校에 그치셨다. 어머니는 仁川李氏忠順衛菊의 따님으로 현숙하시어 규중 범도가 엄하셨고 군자를 섬김에 失德하는 경우가 없으셨다. 선생은 둘째 아들로, 연산군 7년(1501) 6월 26일 辰時에 嘉龜洞 외가에서 태어나셨다.

선생의 휘는 植, 자는 樾仲, 호는 南冥, 본관은 仁寧이다. 태어나면서 비범하여 용모가 청수하고 진중함이 어른 같았다. 같은 또래와 어울려서 놀지 않고, 장난감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판교공이 무릎에 앉히고 시와 글을 가르치니 입으로 따라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여덟 살 때 병으로 앓아 누었는데, 어머니가 근심스런 빛을 보이자, 선생은 기운을 차리고 차도가 있는 듯 보이면서, “하늘이 사람을 내는 것이 어찌 무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저는 다행히 사나이로 태어났으니, 하늘은 반드시 저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실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에 있다면 어찌 저를 요절하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듣는 이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자라면서 서책을 널리 섭렵하여 박식하였고, 특히 左柳文(주2)을 좋아하여 문장이 우뚝하고 힘있었다. 景物을 읊고 사연을 기술함에, 얼른 보기에는 깊이 생각한 것 같지 않으나, 말과 뜻이 엄밀하고 논리가 정연하여 자연스레 법도에 맞았다. 나라에서 策試를 시행하여 글을 行司에게 올리니 유사가 그 답안을 보고 크게 놀라 일등과 이등으로 매김한 경우가 세 번 있었고, 고문을 배우는 자들이 다투어 전해서 외우고 본으로 삼았다. 중종5년(1526) 판교공이 돌아가시자 서울로부터 채백을 모셔와 고향에 안장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와 봉양했다.

선생은 어느 날 許魯齋가 “伊尹의 뜻을 뜻으로 하고, 顏淵의 학문을 학문으로 하여, 세상에 쓰이면 크게 뜻을 펴고 쓰이지 못

하면 道로 자신을 지키리라. 나가서도 한 일이 없고 물러나서도 지킨 것이 없으면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한 글을 읽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이로부터 뜻을 가다듬고 六經과 四書를 다시 읽고 周程張朱(주3)가 남긴 책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정력을 다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사색하였다. 학문하는 방법으로는 敬을 간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하여, 仁一工夫(주4)에 몰두, 늘 정신을 밝게 깨어 있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거두어 하나로 집중시켰다. 또 배운 것을 실천함에는 寡欲보다 절실한 것은 없다 하여 克己工夫(주5)에 힘을 다하고, 마음 속의 찌꺼기를 깨끗이 닦아내어 그 속에 天理를 담아 길렀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고 고요 속에 있는 幾微를 돌아보고 살폈다. 지식이 이미 정밀에 이르렀음에도 더욱 정밀을 추구했고, 행실이 이미 진력했음에도 더욱 진력하였다. 배운 것을 몸에 익히고 체험해서 실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常務로 삼아, 天理를 반드시 人事 위에서 궁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종 24년(1547)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님 묘 동쪽 언덕에 장사지냈다.(주6) 선생은 지혜가 밝고 식견이 높아 나아가고 물러가는 계기에 밝았다. 일찍이 세상이 길을 잃어 혼미하고, 인심이 거칠했어 풍속이 각박하며, 정치가 해이해졌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때를 만나 비록 위기를 만회하고 교화를 펴는 데 뜻을 둔다하더라도 道가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끝내는 내가 배운 것

을 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여, 과거를 그만 두고 벼슬에 나아갈 것을 단념하였다. 뜻을 거두어 가슴에 품고 산야에 물러나 사니, 지은 정자를 山海라 하고 집을 出龍이라 하였다. 만년에 지리산 밑 水窟雲澗에 들어가 八·九間 집을 엮으니, 편액을 山天齋라 하고, 깊이 숨어 스스로 수양하는 세월을 쌓아갔다.

중종 때 천거로 헌능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명종조에 또 遺逸(주7)로 다시 典牲署, 宗簿寺 主簿와 이어서 丹城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면서, “국사는 날로 그르쳐 가고, 민심은 이미 떠났으니, 그것을 만회하는 길은 구구한 행정적 조치에 있지 않고, 오직 전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그 뒤 司紙를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또 尙瑞院判官(從五品)으로 소명을 받고 상경하여 思政殿에서 왕과 문답하였다. 왕이 다스리는 道를 묻자, “고금 치란의 이치가 책에 실려 있으니 신이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신이 생각건대 군신 관계에 있어 情義가 서로 부합하여 서로 막힘이 없이 투명해야만 더불어 정치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제왕은 신료를 대우함이 마치 친구 사이 같아서 더불어 治道를 강구함에 거리낌없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삶이 곤궁하고 피폐하여 가족들의 흠어짐이 마치 뚝 무너진 물길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은 불난 집의 불을 끄는 것보다도 다급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학문하는 방법을 묻자, “임금의 학문은 정치가 말뚝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학문은 心得이 중요합니다. 학문이 마음에 갖추어지면 천하의 이치를 궁구할 수 있고, 그 이치로 萬事 萬物의 변화에 적응해 나아가, 萬機를 總攬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요체는 오직 敬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三顧草廬에 대해 묻자, “반드시 영웅을 얻어야 한나라의 광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세 번씩이나 찾아갔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선생은 다음 날 왕도를 등지고 덕산으로 돌아왔다. 선조1년(1568) 선조가 대통을 잇자마자 교지를 내려 불렀지만 사양하였다. 계속 부르자 사양하는 글을 올려 ‘救急’ 두 글자로 獻身에 대신한다면서 시국의 폐단 12가지를 아뢰었다. 다음 해 또 소명을 받았지만 역시 사양하고 글을 올려, “다스림의 길은 임금 자신이 품에 밝고 誠에 지극함에 있으니 반드시 敬을 주로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胥吏들의 농간으로 나라의 이권이 좁먹고 있음을 강력히 고발하면서 그의 防料를 엄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얼마 뒤 宗親府典籤(正四品)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신미년(1571)에 큰 가뭄이 들자 왕은 곡식을 하사하니,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여러 번 獻策하였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라고 채근하였다. 그 글이 매우 直截하고 긴박하였다. 임신년(1572)에 병이 위중하여 임금은 어의를 보냈으나 도착 전인 그해 2월 18일 운명하시니, 향년 72세이시다. 山天齋 뒷산에 묘터를 잡고 4월 6일 장사지냈다.

선생은 타고난 재질이 영특하고 기상이 고고하였다. 端雅하면서도 嚴峻하고 直截하면서도 方正하였다. 剛毅한 정신, 精敏한 행동, 자신을 지키고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명확하고 과감하여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눈으로는 음란한 것을 보지 않고, 귀로는 엇듣지 않으며, 莊敬한 마음을 항상 속으로 품고 있고, 惛慢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늘 깊은 방에 潛居하여 담장 밖을 나다니지 않아 비록 이웃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선생의 얼굴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들으시며 일어나 머리에 갓을 쓰고 허리에 띠를 둘러 책상 앞에 나아가 几筵처럼 자리를 바로 하면 어깨와 등이 곧게 솟아 있어 마치 조각한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책상을 켜고 책을 펴면 눈과 마음이 함께 이르러 조용히 읽고 깊이 생각할 뿐 입으로 응얼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아 서재 안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다. 움직이고 고요함이 자연스럽고 逍遙自適함에 그 나름의 준칙이 있었다. 비록 갑작스레 황망한 일을 당해도 평상심을 잃지 않았다. 참으로 배울 만한 것이 많았다.

친구와 벗으로 찾아가는 자는 매양 선생의 장중한 기상과 과묵한 언동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용모를 가다듬고 무릎을 굽혀 두려운 듯 공경심이 우러나 감히 쓸데없는 말을 건네지 못했다. 집에서는 진중하게 식구들을 대하시어 집 안팎이 숙연하고 정제되었고, 가까이 모시는 몸종이라도 머리를 빗고 쪽을 바로 하지 않고서는 감히 앞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비록 부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리하였다. 남의 착함을 들으면 기쁜 빛이 얼굴에 나타나 마치 자기의 일인 것 같이 하고, 남의 악함을 들으면 혹여 만날까 두려워 원수를 피하듯 하였다. 벗을 사귄데 반드시 方正함을 취했으니, 그 사람이 벗할 만하면 비록 한미한 선비일지라도 왕공처럼 높여 예로써 경대하고, 벗하지 못할 자라면 벼슬이 비록 높고 귀해도 인형(꼭두각시)처럼 대하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이 때문에 교류가 넓지 못했지만 서로 知己로 통한 분들은 학행과 문장이 뛰어난 당대의 이름 있는 선비 중에서 선택되었다.

선생은 사람 보는 눈이 거울과 등불처럼 밝아서 사람들은 그를 속일 수가 없었다. 어떤 신진소년이 淸班에 올라 자못 사람들의 기림을 받았는데, 선생은 그를 한번 보고선 “그가 재주를 믿고 자신을 뽐내고 기세를 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니, 훗날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이 반드시 그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과연 그는 뒷날 높은 벼슬에 오르자 흥당괴수와 결탁하여 법을 놓다 하고 위세를 부려서 1類들을 死地로 몰아넣었다. 또 어떤 선비가 글재주는 있으나 과거에 실패하여 시기와 질투를 일삼아 어진 이를 원수같이 대하였는데, 선생은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그를 보곤 물리나서 벗에게 “내 그의 미간을 보니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에는 남을 해칠 마음을 품고 있어, 만일 벼슬을 얻어 뜻을 펴게 되면 착한 이들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친구들은 그의 말이 맞아떨어지자 선생의 밝음에 감복하였

다.

매양 國忘川을 만나면 풍악을 듣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하루는 두 서너 이름난 벼슬아치가 선생을 청해 절간에 모여 술자리를 벌렸는데, 선생이 나즈막히 “아무 대왕의 기일이 오늘인데, 공들은 잊으셨는가” 라고 하자, 좌우가 깜짝 놀라 급히 풍악과 고기를 물리치고 술만 두어 순배 마시고 헤어졌다. 천성이 효성과 우애에 돈독하여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반드시 온화한 얼굴로 봉양하여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반찬을 갖추었다. 상중에 있어서는 눈이 짓무르도록 슬피 울고 옷고름과 띠를 풀지 않았다. 새벽과 밤에는 几筵 곁을 떠나지 않았고, 비록 병이 나도 집에 내려가 조리하지 않았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수를 갖추었는데, 음식의 굵고 지짐이 적당한가 혹은 씻고 닭음이 정결한가를 부엌어미에게만 맡기지 않고 반드시 몸소 챙기셨다. 조문객을 맞을 때는 엎드려 곡하며 답배할 뿐 같이 앉아서 말하지 않았다. 종들에게 상기를 마치기 전에는 자질구레한 집안일로 와서 고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우 世과 우애가 매우 두터웠다. 형제는 부모님의 支體라 헤어질 수 없다 하여 한울 안에서 살았다. 출입을 같은 문으로 하고 침식을 같이 하며 늘 기쁜 얼굴이었다. 가산을 털어서 형제 중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주고 조금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았다. 남의 喪事를 들으면 자신의 아픈 양 물불을 구하듯 달려가 구출하였다. 남을 돕는 데 자기의 재물과 힘을 마치 겨와 빛처럼 가뻐이 하였다.

세상을 잊지 못해 나라를 근심

하고 백성을 슬피했다. 매양 달 밝은 밤이면 홀로 앉아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눈물을 흘렸다. 곁에서 모시는 사람도 이를 알지를 못했다. 선생은 만년으로 가면서 학덕이 더욱 깊어지고 경지가 더욱 드높았다. 학생을 가르침에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독실히 하도록 하였다.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의문스러운 뜻을 분석하고 그 설명의 정밀함은 추호의 틈도 용납하지 않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불을 보듯 환히 통달한 뒤에야 마무리했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오늘의 학자는 절실하고 친근한 문제는 방치하고, 높고 먼 데로 나아가고 있다. 학문의 기초는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우애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인륜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힘쓰지 않고 곧장 性命의 깊은 뜻을 탐구하려 든다면, 이는 인간의 문제 위에서 天理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끝내 결과를 마음에 얻은 것이 없으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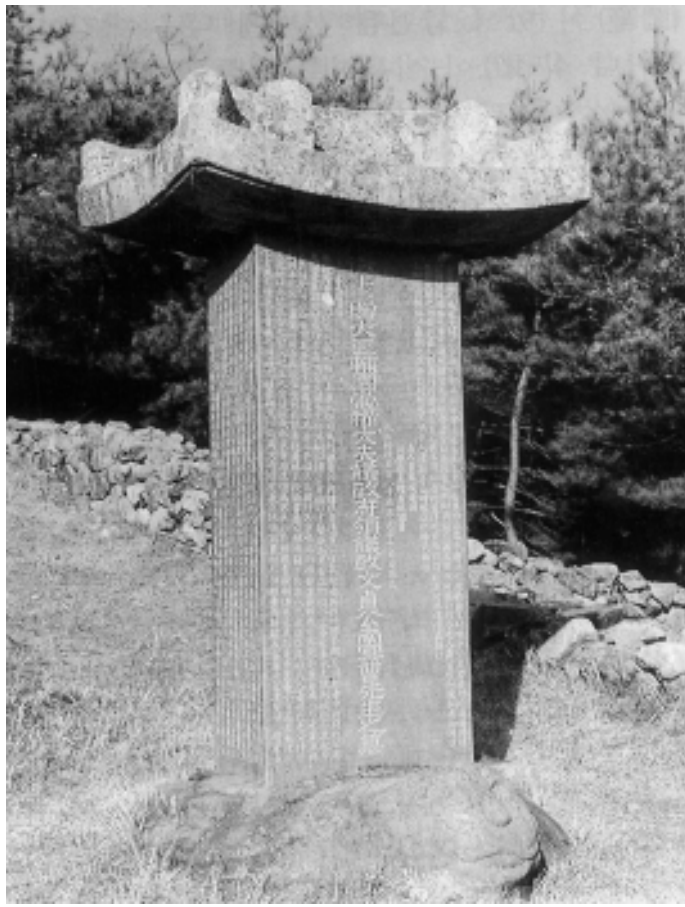
옛 성형의 초상을 그려서 방한권에 붙여 놓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숙연히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마치 스승 앞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했다. 일찍이 “학자는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사색 공부는 밤이라야 더욱 골몰할 수 있어서이다.” 라고 하였다. 스스로 금방울을 차고 이름하여 惺惺子라고 하였다. 이는 때로 흔들리면 맑은 소리가 잠을 깨워주기 때문이다. 항상 글을 읽다 긴요한 대목에 이르면 반드시 세 번 반복해 되새겨 보고 붓을 들어 기록하였으니, ‘學記’ 라 한다. 손

수 [神明舍圖]를 그리고 명을 지었다. 또 天道·天命·理氣·性情과 道를 찾아가고 德에 들어가는 길과 학문의 과정과 경지를 그리기도 하였으니, 이러한 類는 하나가 아니었다. 또 장과 벽사이 문에 敬義 두 자를 크게 써 학자들에게 보이고 스스로를 경각시켰다. 병이 위중할 때도 거둬 敬義 글자를 가르치며 제자들을 훈계하였다. 임종에 아녀자들이 가까이 못오도록 물리치고 죽음을 편안히 맞아 잠에 들 듯 가셨다. 임금이 제문과 부의를 내리고 사간원 대사간을 추증하였다. 교우 문인 친인척들이 통곡하며 장례에 모인 이가 수 백명에 달했다.

부인은 남평 조씨 忠順衛 琇의

따님이다. 선생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아들 딸 남매를 두셨다. 아들은 요절하고 딸은 萬戶 金行에게 시집을 가서 두 딸을 두었으니, 큰 사위는 金宇顯으로 承文院正字이고 둘째는 郭再祐로 학문을 하였다. 勞室에서 삼남일녀를 두시니, 큰아들은 次石, 둘째는 次磨, 셋째는 次砥이고, 막내로 딸을 두셨으니 모두 어리다.

슬프다. 선생은 독실히 배워 힘써 실천했고, 도를 닦고 덕에 나가 그 博學하고 精深함이 견줄만한 이가 드물었으니 가히 옛 성현에 追配하여 후세학자들의 宗師로 삼을 만 하다. 그러나 혹자는 선생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평론을 달리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어찌 오늘에 가서 알아주기를 구하겠는가? 백세 이후에 아는 이가 나와 알아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運은 자랑스럽게도 交朋의 자리에 끼어 從遊한 지가 가장 오래다. 선생의 덕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 남이 미처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 여기에 쓴 것은 모두 눈으로 본 것이지, 귀로 전해들은 것이 아니다. 가히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銘을 쓰노니,

하늘이 주신 큰 덕은 어질고도 곧았어라. 거두어 자신에 쓰기에 족했지만, 세상에 퍼지 못해, 은택이 널리 미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시운이던가, 운명이던가? 백성들의 복없음을 슬퍼하노라! 敬美

미 주

1) 『대곡집』의 비문에서는 “其先有우, ... 誰瑞” 라고 하였고, [行狀]에는 다 같이 瑞를 선생의 시조(김동강의 [행장]에는 鼻祖로 되어 있음)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남명선생별집』 권1 [世系]에는 瑞의

아버지 謙을 시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小註에서 문체 제기를 하고, 보첩에 따른다고 하였다.) 남명 선생이 지은 관교공 비문에는 銘에 “我祖 出山, 九世平章” 이라는 말만 있지 선조에 대한 기록이 없다. 여기서는 [행장]과 원 비문에 따른다. 그리고 九代를 이어 평장사를 지낸 것은, 보첩에는 八代로 되어 있으나, 남명 선생의 기록에 따랐음을 밝힌다.

2) 左柳文은 『左氏春秋』와 柳宗元의 문장체를 말한다. 『좌씨춘추』의 문장은 記述體로서 古字古語가 많고 章句와 義理가 겸해 있다. 浮華誇大하다는 평도 있다. 유종원은 唐宋八代家의 한 사람으로 韓愈와 자웅을 가릴만큼 문장에 뛰어났다. 그 문장은 ‘卓偉精緻’, ‘雄深雅健’ 하다는 평이 있다.

3) 周程張朱 : 周濂溪 · 程明道 · 程伊川 · 張橫渠 · 朱晦庵 다섯 명을 가리킨다. 송대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4) 主·工夫 : 主는 程朱學派 공부론의 주요 개념어이다. 맹자의 “求其放心, 立其大本” 과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잡념이 없는 상태에 이르고, 이것이 一身을 주재하는 이치와 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진 상태를 敬이라고 한다. 『論語』 [學而] 집주에 “敬은 主·無適한 상태를 이룬 것이라 했다. 程了는 말하기를 主·상태를 敬이라 하고, 無適 상태를 이라 한다고 했다. 主·이란 만근의 힘이 화살촉 끝에 집중된 상태요, 無適은 그것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의 목표에 貫注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화살이 목표에 명중될 때는 정곡을 찌름은 물론 어떠한 장애도 뚫는 위력을 갖는다. 선이 악을 싸워 이기는 힘도 이와 같다.

5) 克己工夫 : 顏淵의 중심 개념이다. 글자 그대로 자기를 이기는 힘을 기르는 공부를 말한다. 모든 악은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에서 나오므로 악의 원천을 막는 데고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 論語에서 “子曰, 克己復禮爲仁” 이라 했고, 『顏淵』에 “子曰克己復禮, 天下歸仁焉” 이라고 하였다. 말은 이렇지만, 실은 자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할만큼 극기공부는 실천하기 어려운 공부요, 따라서 실천의 기점이 바로 克己에 있다는 말이 된다. 主·의 공부가 성숙되어야 克己 공부가 가능해지므로, 主·과 克己는 공부 과정에서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 대곡집 원문에는 아버지 무덤에 附左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각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7) 遺逸 : 학문과 행실이 높으면서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산야에 묻혀 高潔自修, 獨行其善하고 있는 군자이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선비를 특대하여 벼슬을 주고 부르지만, 유일은 과거 출신과는 달리 왕명을 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즉 제후나 천자의 신하가 되거나 벗이 되지 않고 高尚其事하는 局外者적 위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逸’ 자를 쓴다.

敬美



[ 南冥先生評傳 ] - 제 1 장 생애(生涯)

## 4.산천재(山天齋)에 이는 대바람 소리(5)

이 상 원(李商元) | 본원연구위원

이 해(1566) 2월 구암(龜岩) 이정(李植)과 함께 단속사(斷俗寺)에 모여 강론하였다. 이즈음 구암은 순천 부사로 부임하여 선생을 모시고 단속사에서 모여 얘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때 인근의 소남(召南)에 살던 대소현(大笑軒) 조종도가 여러 문생들과 함께 와서 선생을 모시고 놀았다. 이 때 구암이 의리의 의심나는 곳을 물으니 선생이 긴절하게 논변하시고, 이공이 잇달아 인근 선비의 부인의 실행(失行)을 얘기하자, “선비가 내 몸 다스리기도 한가롭지 못하거늘 어느 틈에 남의 잘못에 대하여 간여할 겨를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이 일은 당시 초계에 살던 남명의 친한 친구, 이희안이 죽은 뒤 그 후취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하여 구암이 말한 것인데, 선생의 대답이 이와 같으므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단속사는 오늘날 산청군 단성면 운리(雲里)에 그 절터와 당간지주, 동탑, 서탑이 남아 있다. 당시에 대단히 규모가 큰 사찰로 기록되고 있는데, 옛날이 곳 스님들이 쌀을 씻으면 그 쌀 뜨물이 경호강으로 흘러들 정도였다고 전한다. 가히 대찰(大刹)로 전해지는 이 곳은 남명에 관한 유지(遺址)로서도 그 의미가 깊은 곳이다. 단속사는 남명의 문인 부사(浮杵) 성여신(成汝信)과 정당매(政堂梅) 유지로서 그 일화가 남아있다. 단속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부사와 관계가 깊다. 1568년 가을에 진주목사 최응룡과 함께 정유길(鄭維吉)이 인근의 유생을 모아 시부를 짓게 하여 그 중에 열명을 선발해 단속사에 모였다. 선발된 유생은, 성여신, 진극경, 이곤변, 정승윤 등 이었고 이들 중 가장 으뜸이 성여신이였다. 이즈음 승려 휴

정이 「삼가귀감(三家龜鑑)」을 지어 단속사에서 판각을 하였고 불상을 조성하여 사천왕(四天王)이라 하여 그 모습이 매우 기괴하였다. 삼가는 유, 불, 선의 삼가(三家)를 말하는데, 그 편차에서 유가를 제일 끝에 둔 게 화근이 되었다. 이를 성부사가 보고, “우리 도(儒家)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하여 승려들에게 그 책판과 불상을 모두 불태우게 하는 일이 일어났고, 부사는 자못 강개하였다. 뒤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명은 그의 강개한 성품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며 부사를 허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단속사에는 남명의 시 한 수가 전하는데, 단속사의 정당매(政堂梅)를 두고 읊은 것으로 고려 말기 통정(通政) 강희백(姜淮伯)의 실절(失節)을 기롱(譏斥)한 시로써 남명의 출처관을 엿볼 수 있는 의미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寺破僧癯山不古 前王自是未堪家  
化王正誤寒梅事 昨日開花今日開  
- 斷俗寺政堂梅 -

절 무너지고 중 파리하여도 산은 늙지 않아  
앞의 왕조가 스스로 사직을 지키지 못하였네.  
조물주는 추위에도 지조 지킨 매화를 그려쳐  
어제 꽃 피우고 또 오늘도 꽃 피우는구나.

이제신(李濟臣)은 「후청쇄어(鮪鮪瑣語)」에서 남명이 이 시로써 강희백의 절개를 잃음에 대해 조롱한 시라 하였다. 강희백은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세자의 스승이 되었고 이어 밀직사사대사헌(密直司事大司憲)의 벼슬의 하였다가, 조선 왕조에 들어 다시 태조때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

都巡問使)를 지냈다. 그는 젊어서 단속사에서 공부하여 매화를 심었는데 그 뒤 과거에 급제하여 정당문학에 이르렀다. 이로 부터 단속사의 매화를 정당매라 불렀다. 그는 고려와 조선의 두 왕조에 출사하여 지조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를 뒷날 남명이 강회백이 심었던 정당매가 매우 추위를 뚫고 피는 매화의 본성을 거스르고 아무 때나 꽃을 피우며 은근하게 시로써 비판한 것이다. 조물주도 매화의 분별없는 섭리를 저버렸다고까지 하였으니 강회백의 실절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드러내어 남명 자신의 출처관에 대한 엄정함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시라 평가된다.

3월에 임갈천, 노옥계, 강개암과 함께 안음 옥산동으로 가서 노닐었다.

선생이 하각재, 조대소헌, 하영무성, 유조계, 이모촌과 함께 함양으로 가 옥계를 만났다. 옥계는 인근의 개암 강익을 불러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갈계리에 있는 갈천을 방문하였다. 갈천은 본관이 은진이며 자는 중성(仲成), 이름은 임훈(林薰)(1500-1584)으로 안음에 살았는데 남명과 종유하였고 「갈천집(葛川集)」이 남아 있다. 그는 남명보다 한 살 위로 생원시에 합격하여 향리에 숨어 지내다가 잠시 참봉 벼슬을 하였다. 남명이 온다는 기별을 받고 그는 도중에 아우인 첨모당(瞻慕堂) 임운(林雲)을 보내 선생 일행을 맞이하게 하였다. 갈천의 집에 다다르자 인근의 함양, 안의, 거창 등 여러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운집하였는데, 선생은 그들의 물음에 일일이 가르침을 주었다. 특히 첨모당을 불러서, “자네는 총명함이 넘쳐서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려 하시마는 단지 그것만으로는 도리어 충분하지 못하네. 대개 요임금의 슬기로우도 오히려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군자는 능한 것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거느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선비의 일이란 스스로 내·외(內外)와 경·중(輕重)의 분별이 있을 것인데, 주자께서도 일찍이 의리는 다함이 없고 일월은 한정이 있다 하시고 마침내 서예, 초사, 병법 등을 버리고 온전히 학문에만 뜻을 두어 모든 선유의 학설을 모아 대성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후학으로서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날 밤에 여러 선비들과 함께 심·성·정(心·性·情)의 분별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이튿날 갈천에게 말하기를 “전번에 내가 왔을 때 삼동(三洞)의 경계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였네.”라고 하셨다. 이에 갈천이 “나 또한 흥취가 열지 않으오.”하고, 함께 유람을 하였다. 삼동은 원학동(猿鶴洞), 장수동(長水洞), 옥산동(玉山洞)인데 골짜기의 경치가 매우 빼어났다. 이 때 읊은 남명의 시가 전하는데 그 중의 한 수를 살펴본다.

白石雲千面 青巖織萬機  
莫教摸寫盡 來歲探微歸  
- 遊安陰 玉山洞 -

하얀 돌에 구름은 천 가지 모습  
푸르른 낭칼이 온갖 모양을 짠다네.  
다 말하려고 하지 말게나  
어느 해엔가 고사리 뜯으러 돌아 올 터인데.

일행은 원학동을 출발하여 장수동을 거쳐 옥산동에 가서 노닐다가, 갈천정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 왔다.

성주에 살던 정한강이 와서 배웠다. 이 해 한강은 23세였는데, 이미 성주훈도로 있던 덕계 오건에게서 주역을 배웠고, 21세 때 도산으로 가서 퇴계에게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미 덕계를 통하여 남명의 학문과 인물됨을 알고 있었고, 이 해에 덕계의 소개로 남명의 문하에 들어 집지의 예를 드린 것이다. 남명이 죽고 난 뒤 한강이 지은 제문에서, “폐백을 갖추어 찾아가 뵈은 지가 지난 병인년 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생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거두어 제자의 반열에 넣어주셨다. 또한 가르칠만하다고 여기시어 교화하기를 게을리 않으시고 논설과 경계의 말씀으로 근본과 결말을 두루 헤치어 사물을 끌어 비유하심이 끝이 없으시어 마치 강물이 흘러가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았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간곡하게 선을 행하여 그 기뻐하시는 정성이 환하게 드러나 밝고도 깨끗하였다.”라고 하였다.

7월에 조정에서 교지를 내려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교지에 이르기를, “짐이 불민(不敏)하여 호현(好賢)하는 정성이 모자라는 듯 하구나. 전일에 비록 품계를 뛰어 특별히 벼슬을 내렸으나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내 실로 부끄럽구나. 지금도 초야에 숨어 있는 선비를 내가 간절히 찾고 있소. 서늘한 때를 기다려 말을 타고 올라오시오.”라 하였다. 친정을 막 시작한 명종은 간곡하게 선생을

불렀으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를 간곡히 거절하였다. 남명은 이미 자신이 제수 받은 벼슬이 큰 포부를 실현하는데 미치지 못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엄정한 출처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이 이를 쉽게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

8월에 다시 상서원판관으로 벼슬을 거듭 내리는 교지로써 부르심이 있었다. 10월 초3일, 대궐에 나아가 숙배하고 사정전에 입대하여 11일에 사임하고 돌아왔다.

교지에 이르기를, “그저께 경상도 관찰사 강사상(姜士尙)이 올린 장계에 의하면, 늙고 병들어 올라올 수 없다고 함을 알고 이에 짐의 마음이 허전하였소. 내 불민하고 호현함이 부족하여 그러니 부끄럽소. 올 수 있다면 마땅히 약재를 내릴 것이오. 모름지기 노병에 구애받지 말고 형편에 따라 잘 조리하여 올라오시오. 또 본도 감사로 하여금 식물을 갖추어 지급토록 하였으니 그대는 그리 아시오.” 라 하였다.

명종의 곡진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남명은 거듭 벼슬을 사양하였는데, 이 때 경상감사의 장계에 따르면 약간의 노병이 덧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명은 산천재를 떠나 서울로 자신의 말을 타고 입시하여 명종을 숙배하였다. 떠나면서 미리 덕계와 약포 정탁에게 기별을 넣어 서울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10월 초하루 쌀쌀한 한강 가에서 마중나온 두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오후에 생질 이준민의 집에서 조문을 하였다. 강계부사로 있던 이준민이 부친상을 당해 상중에 있었다. 초사흘날 포의를 입은 채로 입궐하여 명종을 숙배하고 식물을 내리신데 대하여 사은하였는데, 이때 덕계와 약포가 곁에 모시고 있었다. 벼슬을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베옷을 입고 임금을 뵈었다. 초이렛날, 편전에서 임금을 뵈었다. 이때 옥과 현감으로 제수되어 상경한 김범(金範)과 같이 입시하였다. 김범도 남명과 같이 여러 번 벼슬이 내렸으나 누차 나아가지 않다가 이 때 올라온 것이다. 당초 조정에서 경학에 밝고 행실이 맑은 선비로서 성운(成運), 이항(李恒), 임훈(林薰), 김범(金範), 한수(韓修), 남언경(南彦經) 여섯 사람을 크게 불렀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이 산림에 숨은 어진 이로 조모(曹某)만한 이가 없다 하므로 이에 임금이 부르신 것이다.

명종이 남명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하여 물었다.

“고금의 다스리고 어지러움이 모두 다 책에 실려 있으니 굳이 신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정의가 서로 부합되어 환히 통하여 거리가 없어야만 더 붙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신하들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여 그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강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백성이 곤궁하고 피폐해서 사망으로 흩어지는 것이 마치 물이 터져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크게 불이 난 집을 구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학문하는 방도를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임금의 학문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며 학문은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얻기만 하면 천하의 이치를 환히 알 수 있고, 사물의 변화에 대처 할 수 있어서 온갖 정사를 한꺼번에 끌어 잡아도 스스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요령은 다만 경(敬)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삼고초려(三顧草廬)하던 옛 일을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반드시 영특한 인재를 얻어야만 한(漢)나라의 종사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찾았던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옛날 촉한의 유현덕(劉玄德)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오두막을 세 번이나 찾은 뒤에야 제갈공명이 세상에 나와 대업을 이룰 수 있던 일을 물은 것이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선생의 소식을 듣고 당시에 조정에 가득했던 사대부들이 상서로운 봉황과 밝은 별을 본 듯이 다투어 와서 선생을 뵈고 학문을 품위하고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였다. 敬堯

## 제 2 회 남명선비문화축제

'새천년을 남명선생의 선비정신으로!'란 주제의 제 2회 남명선비문화축제는 남명 선생의 선비정신과 실천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지의 결집 및 도덕성 회복, 국난을 극복한 제자들의 의병활동을 조명하여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확립하며, 남명 사적지의 관광자원화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작년의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올해 축제에 사용한 예산은 1억 3,172만원인데, 그 내역은 국비 2,000만원, 도비 4,000만원, 산청군비 4,500만원,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과 자부담 1,672만원이다. 특기할 것은 조옥환 부이사장이 기념부채 3,000개와 초등학교 국어 읽기 5-2 교과서에 실린 '참다운 선비, 조식' 복사본 3,500권, 금액으로 885만원을 기증해주었다. 이 부채와 교과서 복사본은 선비문화축제에 참석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에 개최된 행사의 개요와 사진을 실는다.

### ■ 행사 종합표

행사명	일시	장소	내 용	비고
학술대회	8. 16~8. 17	경상대 남명학관	발표자 9명(중국1)	(사)남명학연구원
서사극공연	8. 17/20:00	덕천서원	선비정신의 표상 - 남명	밀양연극촌
의병출정식	8. 17/21:30	덕천서원	거리극, 서막공연, 출정교유제, 뒤풀이 등	밀양연극촌
남명제 기념식	8. 18/10:00 8. 18/11:00	송덕사 덕천서원	-제례, 아악공연 -기념식, 남명장학금 수여	덕천서원, 산청군 경남사립중·교장협회
식후 공연	8. 18/12:00	덕천서원	한국전통무용, 유랑극단, 택견, 선무도, 사물, 풍물놀이	밀양연극촌 풍물패 소리바다
남명산행코스 지리산 등반 및 산중강좌	8. 15~8. 17	지리산	남명행적코스탐방, 산중강좌	경남일보
전국 남·여 시조경청대회	8. 18~8. 19	덕산문화의 집	국창부, 명인부, 특부, 갑·을부	산청시우회
내고장 문화탐방	8. 17~8. 18	도내일원	문화유적탐방 및 축제참관	경상남도

### 1. 서사극 공연

- 일시 : 2002. 8. 17(토) 20:00~21:30
- 장소 : 덕천서원 가설무대
- 주관 : 밀양연극촌
- 참석 : 군민 등 2,000여명
- 극명 : 선비정신의 표상 - 남명



- 1막 / 산중 독서인(3장)
- 2막 / 세상과 만나다(4장)
- 3막 / 사화(3장)
- 에필로그
- 제작/기획 : 밀양연극촌(극본, 연출 이윤택) / (주)월산 프로젝트
- 출연 : 하용부, 정동숙외 연희단거리패 단원 50여명
- 참여단체 : 연희단 거리패, 극단 가마골, 초청 배우

### 2. 의병출정식

- 일시 : 2002. 8. 17(토) 21:30~22:30
- 장소 : 덕천서원 가설무대
- 주관 : 밀양연극촌

· 진행

거리극(30 분), 서막공연 「천년의소리」, 불꽃놀이, 출정고유제, 출정결의문 낭독, 남명선생 혼불지피기, 승전기원 달집지피기, 출정열병 및 분열, 뒤풀이(대동놀이), 사물놀이(참여단체 전원)

· 참여단체 : 연희단거리패, 극단 가마골, 온누리예술단, 유랑극단팀, 소리바다 풍물패, 연원가 후손, 일반참가자 등



· 장소 : 덕천서원 가설무대

· 주관 : 산청군, 추진위원회

· 진행

개식, 국민의례, 경과보고(남명학연구원 이사장), 환영사(산청군수), 기념사(덕천서원 원장), 인사(경상남도지사), 축사(국회의원 등), 남명 장학금 전달

5. 식후 공연

· 일시 : 2002. 8. 18(일) 12:00 ~15:00

· 장소 : 덕천서원 가설무대

· 주관 : 밀양연극촌

· 주요내용

- 한국 전통 무용("뉘"무용단)
- 유랑극단 공연(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 택견, 선무도
- 뒤풀이(풍물패 소리바다) : 사물, 풍물놀이

3. 남명선생 탄신(501주년) 추모제

· 일시 : 2002. 8. 18(일) 10:00~11:00

· 장소 : 덕천서원 송덕사

· 주관 : 경남사립중 고교 교장회



<b>8월 16일(금요일) 14:00~17:30</b>	
김충렬(남명학연구원장)	[神明] 神의 새로운 考釋
유학지(섬서사범대)	추정 명과 장재 심성론의 비교연구
권인호(대진대)	남명학의 院에 나타난 시대정신과 社會
전재강(동양대)	南冥의 詩와 詩의 精神에서 본 南冥의 學
좌장 송재운(동국대 교수)	
<b>8월 17일(토요일) 09:00~12:30</b>	
한상규(동주대)	南冥의 學問精神과 性向
설석규(한국국학진흥원)	역양 문경호의 南冥 研究와 정치적 역할
정낙천(영남대)	남명교육방법론의 院의 意義와 方法
정우락(영신대)	南冥의 事物 認識方法과 諸精神의 方法
박병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연관계를 통해 본 남명학파
좌장 허권수(경상대 교수)	

4. 기념식

· 일시 : 2002. 8. 18(일) 11:00



6. 학술대회

· 일시 : 2002. 8. 16(금) 14:00 ~ 8. 17(토) 14:00

· 장소 :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

· 발표자 : 9 명 (국내 8 명, 중국학자 1 명)



### 7. 남명산행코스 지리산 등반 및 산중강좌

- 일시 : 2002. 8.15~8.17(2박3일)
- 8.15, 15:00 문화예술회관 출발 노고단(숙) 세석산장(숙) - 8.17, 저녁 덕천서원 도착 및 시상
- 주관 : 경남일보사
- 참여 : 전국 대학 산악부 학생

### 8.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 일시 : 2002. 8.17~8.18
- 장소 : 덕산 문화의 집
- 참여인원 : 500여명
- 주관 : 산청 시우회



### 9. 내고장 문화탐방

- 일시 : 2002. 8.17~8.18
- 대상 : 200명(문화예술인 100명, 중고생 100명)
- 주관 : 경상남도
- 내용 : 문화유적탐방 및 선비축제 참관
- 탐방코스
  - 문화유적 탐방 : 충익사, 진주박물관, 목면시 배유지, 최참판댁 등
  - 축제참관 : 서사극공연, 의병출정식, 남명제 및 기념식, 식후공연 등

[ 서평 ]

## 學記類編

사람의 길 배움의 길

조식 엮음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역주  
479쪽 2만 2000원 한길사

권인호 | 대진대학교수 · 본원상임연구위원

독서의 계절이다. 독서는 나를 건강하게 한다. 요즘 사람들은 온통 육체의 건강만을 이야기하고 다 이어트 조깅 등산 헬스트레이닝에 여념이 없다. 갈수록 뻘뻘스럽고 염치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군상들의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이런 시절에 성현의 말과 글을 담은 책을 읽는 것은 정신의 건강과 자신을 성찰케 하는 '사람의 길이요 배움의 길'이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대학자인 남명 조식(南冥 再植 · 1501~1572)이 평소에 독서하면서 '자신을 닮고 세상 사회를 맑게 하는(修己治人 · 수기치인)' 성현의 말과 글을 뽑아 적어둔 것이다. 제자인 내암 정인홍(來庵 鄭仁弘)은 이 기록을 가지고 남명의 허락을 얻어 후배들과 함께 '근사록(近思錄 · 중국 송나라 주희와 여조겸이 편찬)'의 체제에 맞춰 분류하고 편집하여 1617년에 간행하고 서문을 썼다.

이 책은 송·원나라와 명나라 초기의 대표적 학자 60여명의 말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중심(900여 항목 가운데 650 항목)으로 사서오경, 역사서, 제자백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남명이 직접 그린 24개의 철학사상 관련 그림(圖)이 실려 있다.

16세기 초는 조광조 등의 왕도정치가 실패로 돌

아가고 정치가 사회로 얼룩지면서 학문풍토가 사변적 이론탐구와 논변으로만 치우치던 시절이었다.

남명은 이렇게 왜곡된 학문풍토에 대해 ‘세상을 속이고 명망을 도둑질하는 것(欺世盜名·기세도명)’이라 비판했고 정인홍도 ‘학문의 근본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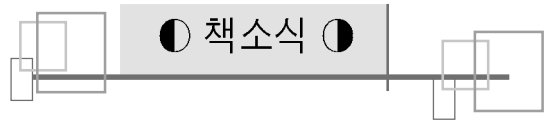
남명은 정자와 주자의 넓고 깊은 학문이 이미 책으로 집대성되어 나와 있다며, 굳이 따로 이론탐구와 저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독실하게 수양 실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백성을 도외시한 정치현실에 대해 민본(民本) 정치사상을 다시 일깨우고 모순된 당시의 현실을 과감히 고발하는 개혁사상으로 상소를 했고, 이는 훗날 실학사상으로 연결됐다. 또한 조선조 500년 최고의 교육자란 훗날의 평가에 걸맞게 그의 문하에서 대학자, 정치가를 비롯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57명이나 배출했다.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이 책을 통해 진리의 본체 및 학문의 요체와 그 목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과 정치인들을 위한 잠언 같은 말들도 곳곳에서 독자를 기다린다.

“부자가 자식을 교육할 때는 도리를 중히 여기도록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식을 교육할 때는 마땅히 절개를 지키게 해야 한다.”(‘집안을 다스림’ 편)

“무릇 임금은 배와 같고 서민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다스리는 도’ 편)

[동아일보, 2002년 11월 08일 (금)]



■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한국학연구총서 1)

薛錫 著 / 도서출판 선인

우리 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이자 한국국학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설석규 선생이 지은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조선시대 정치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야 양반사림의 上疏를 통한 公論形性의 양상과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 儒疏의 동향을 통해 조선시대 정치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여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退溪學派, 栗谷學派를 비롯한 제 학파의 정치철학을 규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정치사를 재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역사가 단절의 대상이 아닌 발전적 계승의 대상이며, 양반사림의 문화가 청산의 대상이 아닌 비판적 계승의 대상임을 확인하고자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477쪽 / 20,000원



■ 조식의 생애와 사상(남명학 교육 총서 1)

김낙진·권인호·김창욱·박기용 지음 /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소

이 책은 진주교육대학교가 제시한 네 가지 특화사업 중, 남명사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통사상과 전통 교육방법을 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① 소식 ①

으로 장차 일선 교단에서 올바른 윤리관을 갖춘 건전하고 진취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 1부 소식의 생애는 편집부에서 집필하고, 제 2부의 철학사상은 김낙진 진주교대 교수가, 경제사상은 우리 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인 대진대 권인호교수가, 교육사상은 김창욱 진주산업대 교수가, 문학사상은 박기용 진주교대 교수가 나누어 집필하였다.

308 쪽 / 비매품



들이 쉽게 선현들의 언행을 접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학기류편은 상하 2권, 14 편, 약 900 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자의 말이 약 350 항목, 정이천의 말이 약 200 항목, 정명도의 말이 약 100 항목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송나라·원나라의 학자 60 여 명의 말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1995 년부터 번역에 착수하였는데, 허권수, 최석기, 황의열, 이상필 교수가 참여하였다.

479 쪽/22,000 원

■ 남명 소식의 철학사상연구

손영식 · 조남호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學記類編 - 사람의 길 배움의 길-

조식 엮음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역주

학기류편은 남명선생이 평소에 독서하면서 자신의 공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가려 뽑아 적어둔 것을, 그의 제자 鄭仁淵이 近思錄의 체제에 맞추어 분류 편집한 책이다.

이 학기류편은 실천을 중시한 남명선생의 학문적 태도에서 나온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性理大주 등 성리학에 관한 저술은 너무나 호한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전체를 모두 열람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그 핵심을 파악하여 정리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옛날 분들의 말과 행실 가운데 자신에게 절실한 말을 뽑아 기록하고 모아 수양과 반성의 토대로 삼고 아울러 배우는 사람



이 책은 남명 소식의 주체성 확립 이론과 사림의 정신,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의 남명학 비판이란 두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남명학 자체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남명학에 대한 외부의 분석이다. 즉 퇴계학이나 율곡학에서 남명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재적인 분석과 외재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 남명학을 규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남명학을 양명학적인 틀로 규정하고, 후자는 남명학을 주자학적인 틀로 규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 책을 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남명학에 대한 현재의 평가도 대략 이 두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명학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더 진전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224 쪽/10,000 원



## 학술대회

###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제 2차 학술대회 개최

2002년 10월 18일(금)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동아시아 儒學史에서의 南冥學과 그 위치' 이란 주제의 學記類編 번역 출판 기념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姜信杓(인제대) 교수의 神明畝圖·銘의 새로운 理解란 기초강연과 李相嗣(경상대) 교수의 南冥의 理氣心性論, 李紉祥(중화민국) 교수 學記類編與師門傳述, 卞聖佑(한양대) 교수의 막스 베버의 <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기독교적 금욕주의와 남명의 금욕주의-熊禮匯(중국) 교수의 南冥 文論傾向論, 片岡龍(일본) 교수의 江戸시대에 있어서 朝鮮儒學 수용의 한 국면 - 人塚退野를 중심으로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宋截(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낙진(진주교대), 허권수(경상대), 이동철(용인대), 안대회(영남대), 장원철(경상대)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20

### ■ 한국철학자대회

2002년 11월 1, 2 양일간 경상대학교에서 한국철학자대회가 열렸다. 이 철학자대회에서는 1, 2부의 기초발표와 남명학 등 14 개의 분과학회 발표와 다산기념 철학강좌가 있었다. 우리 연구원의 김충렬 원장이 '유교문화와 유교윤리'란 주제의 기초발표가 있었고, 남명학 분과학회에서는 임헌규(강남대) 교수의 '남명 성리학의 기본특성', 성호준(영산대) 교수의 '남명 철학의 도교적 기반에 대한 이해', 김경수(경상대 박사과정) 선생의 '남명의 인물평을 통해 본 출처관의 기저', 도민재(영산대) 교수의 '한강 정구의 학문과 예학사상', 오이환(경상대) 교수의 '남명집 중간본의 성립'이란 논문의 발표가 있었고, 논평에는 김상래(영산대), 정성식(성심외대), 설석규(국학진흥원), 최영성(한국전통문화학교)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 연구원이 후원하였다.

### ■ 남명학회 국제 학술대회

남명학회와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南冥學과 韓國性理學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가 11월 20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金慶洙(中央대) 교수의 南冥 曹植과 頭流山, 佐藤仁(日本 廣島大) 교수의 南冥學 試論, 高令印(中國 廈門大) 교수의 南冥學은 韓國性理學의 正統이다, 丁垣在(서울대) 교수의 曹植이 본 金宏弼, 李愛熙(江原大) 교수의 南冥 曹植의 [學記圖]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 曹逸主(平澤大) 교수의 南冥의 詩에 나타난 선비상, 嚴連錫(翰林大) 교수의 南冥 曹植의 자연관과 도덕적 자율의 문제, 李賢濬(서울市立大) 교수의 주자학적 관점에서 본 南冥 曹植의 敬義 사상이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朴性奎(高麗大), 羅聖(韓神大), 朴洋子(江陵大), 李俸珪(仁荷大), 權仁浩(大眞大), 李光虎(延世大), 崔英辰(成均館大), 金弼洙(東國大)가 참여하고, 座長은 宋截(成均館大) 교수가 맡았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39명이 부산교통 관광버스로 하루 전날 진주에서 출발하여 서울에서 자고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 ■ 진주교육대학교 학술발표회

진주교육대학교가 주최한 '남명학과의 교육사상과 학교교육적 적용' 이란 주제의 학술발표회가 11월 23일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원호(전 부산대) 선생의 남명 교육사상의 학교교육 연계화란 주제의 기초발표와 전영국/손승남(순천대) 교수의 남명의 교육사상과 독일 도야 이론의 비교 연구, 전재강(동양대) 교수의 한강 심학의 교학적 성격, 사재명(경상대) 박사의 조선 중기 덕계 문인의 형성과 강학, 채취균(영남대) 교수의 남명학과 실천사상과 학교교육, 김상래(영산대) 교수의 한강 정구의 도덕 교육론의 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안경식(부산대), 도민재(영산대), 정진영(동명정보대), 김경수(경상대), 송준식(진주전문대)이 참여하였다.

● 소식 ●

■ 경상대·충남대 공동주최 학술대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가 11월 29일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있었다. 江石地域과 湖西地域의 學脈과 書院教育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許捲洙(경상대) 교수의 인조반정 이후의 남명학과 사계학과 변화, 黃義東(충남대) 교수의 湖西儒學의 展開樣相과 特性, 崔光晚(충남대) 교수의 16~17세기 충남지역 교육 중심권역의 변화, 金洛眞(진주교대) 교수의 17~19세기 강우 유학의 흐름과 쟁점, 宋淮湜(진주전문대) 교수의 남명학과 서원건립운동이란 주제의 발표가 있었고, 토론에는 남명진(충남대), 김준형(경상대), 김해영(경상대), 이상필(경상대), 사재

명(경상대)이 참여하고, 좌장은 宋截郞(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 점필재 김종직선생 학술회의에

우리 연구원 원장, 상임연구위원 2명 발표

2002년 10월 15일 밀양문화원 주최로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점필재 김종직선생 학술회의에 우리 연구원 김충렬 원장과 박병련, 정우락 상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했다. 김충렬 원장은 한국 유교의 도통과 김종직의 위상을, 박병련 상임연구위원은 점필재 김종직의 정치사상과 사림과의 계승양상, 정우락 상임연구위원은 김종직의 문학적 신과 동국문화에 대한 자각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우성 민족문화추진회장의 기조강연과 5명의 발표가 있었다.



● 소식 ●

■ 남명장학금 시상

2002년 8월 18일 남명선비문화축제 기념식에서 남명장학금수여식이 있었다. 남명학 관계 석사, 박사 논문 우수 집필자에게 수여하는 남명장학금의 수혜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치학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김성문씨이다. 석사학위논문 제목은 '조선중기 사림정치와 1의 카리스마' - 퇴계와 남명의 정치적 논쟁을 중심으로 - 이다.

일 후인 선조 25년부터 광해군 원년까지 약 18년 동안 쓴 일기이다. 이 책은 4권 4책 514쪽으로 되어있는데, 임란 7년 동안의 다양한 사적을 살필 수 있고, 함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상수도 지역에서의 의병활동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원문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발행한 남명학연구 1, 2집과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발간한 임진왜란사료총서 역사편 제10권에 영인되어 소개되었다.

■ 德川書院 秋享 奉享

음력 9월 初丁日(양력 10월 6일)에 덕천서원내 송덕사에서 유림과 경상대학 한문학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향을 봉향하였다. 이날 초헌관에 金東漢, 아헌관에 許永道, 종헌관에 鄭錫旆, 집례에 梁在東, 축에 權寧達이 맡았다.

■ 산천재 - 노장적 건물 배치

건축평론가이자 계간 《문학 | 판》의 편집위원인 함성호씨가 디새집 여름호에 철학으로 읽는 옛집이란 코너의 '칼빛, 방울소리 - 남명 조식의 산천재'란 제목의 글에서 산천재가 남명 선생의 노장적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였다. 산천재의 대문을 들어서면 전면에 보여야 할 건물들이 모두 우측으로 치우쳐 있고, 도가적 풍모를 지닌 지리산 천왕봉에 정면을 내주기 위해 건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함으로써 자연과 건물이 한 몸을 이루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 상임연구위원회 개최

지난 8월 31일(토) 11시 30분에 연구원 강당에서 상임연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는 원장과 상임연구위원 10명 전원, 이사장,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지 등록문제, 연구사업 계획 수립, 연구논총 11집 발행, 연구계획서 검토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여기에서 올해 연구사업으로 고대일록을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는데, 孤臺日錄은 孤臺 鄭慶雲(1556~?)이 임진왜란 발발 3

중앙일보 8월 21일자 문화면의 기사에 박병련(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남명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건축가의 선입견이 없는 시각이 문헌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반가운 작업"이라면서 "남명 선생은 탁월한

유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노자와 장자는 물론 불교 등에도 열린 자세로 임했던 학문적 경향을 제대로 조명할 때 한국 사상사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 역동적으로 재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진주교대 강연회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후원으로 지난 9월 28일 9시부터 남명사상과 문학적 상상력이란 주제의 특별 강연회가 있었다. 진주교육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우리 연구원 정우락 상임연구위원의 <남명 삶의 특징과 문학적 상상력>, 김충렬 원장의 <神明畝圃·銘에 대하여>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는데 교대 학생 약 400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 초등학교 읽기 5-2 교과서 남명 조식 부분 복사본 400권을 참석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설석규·한상규 상임연구위원 산청군청에서 강연

지난 8월 1일 우리 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인 설석규 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산청군청 직장교육에서 남명사상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또한 10월 31일 한상규 동주대학 교수도 산청군청 민방위교육 시간에 특강을 가졌으며, 11월 2일 부산 북구 주민 200여명을 안내하며 산청군내 남명선생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진주교대와 협정서 체결

2002년 8월 30일 진주교육대학 총장실에서 우리 연구원 김충렬 원장과 진주교대 권정호 총장간에 체결된 협정서에는 兩機關이 남명학의 연구 및 敎育事業에 필요한 있어 敎授, 研究人力, 學生, 自願奉仕 人力 등의 人的資源과, 施設 및 기타 이용 가능한 부분 및 發行, 製作되는 南冥學 관련 情報, 文獻 기타 資料를 交換하고, 要請이 있을 때 貸貸할 수 있도록 相互支援한다는 내용이다.

남명학연구원 회원가입 신청서

본인은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회비 :2만원/ 연구원 간행책자 일부 및 원보 우송)

성명	(한글)	본 관	연원관계
	(한자)	생년월일	약 력
주소	(주택)		전 화
	(직장)		전 화

#각종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 뒤에(우편)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이사장 귀하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2F) / 전화 (055) 748-9147~8 / 팩스 (055) 748-9152  
 계좌번호 : 우 체 국 : 610774-01-004728 남명학연구원  
 농 협 : 803-01-367374 남명학연구원  
 국민은행 : 652-01-0491-776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경남은행 : 524-07-0081228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 남명선생 학기도와 시문 병풍 제작

국립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원장 박익환)과 한라디자인뱅크가 공동으로 남명선생의 신명사도와 學記類編에서 9圖를 선정하여 10 폭의 흑백과 원색 병풍서를 개발하였다.

이 병풍서에는 神明舍圖와 神明舍銘, 三才一太極圖와 浴川詩, 誠爲太極圖와 誠箴, 天人一理圖와 시조 頭流山 兩堂水, 心統性情圖와 詩 題德山溪亭, 忠恕圖와 덕천서원 전경 및 안내기문, 敬性圖와 詩 雷龍亭遇雪, 審幾圖와 詩 德山卜居, 爲學次序圖와 河慶圖의 詩 山海亭重修韻, 博約圖와 尹秉文의 시 德門亭告成原韻이 실려 있다.

8폭 병풍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그림은 흑백이 7만원, 원색이 16만원인데, 구입을 원하는 분은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660-040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전화 (055) 748-9147~8

팩스 (055) 748-9152

###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 14-21 BONGGOK-DONG, JINJU,

KYUNGNAM 660-040, KOREA

TEL: 055-748-9147~8 / FAX: 055-748-9152

INTERNET HOMEPAGE : <http://www.nammyung.org> / E-mail : [ionms@nammyung.org](mailto:ionms@nammyung.org)